

재외동포의



July 2017



삶의 희로애락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민중의 노래 ‘판소리’

지식층 서민 문화 모두 담아내... 소리꾼과 청중의 적극적 참여로 완성



1

판소리는 한 명의 소리꾼이 고수(북 치는 사람)의 장단에 맞추어 소리(창), 아니리(말), 너름새(몸짓)를 섞어가며 구연(口演)하는 일종의 솔로 오페라다. ‘판소리’는 ‘판’과 ‘소리’의 합성어로 ‘소리’는 ‘음악’을 말하고 ‘판’은 ‘여러 사람이 모인 곳’ 또는 ‘상황과 장면’을 뜻하는 것으로 ‘많은 청중이 모인 놀이판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다.

판소리의 유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조선 영조 30년(1754)에 유진한이 지은 춘향가의 내용으로 보아 적어도 숙종(재위 1674~1720) 이전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하고, 조선 전기 문헌에 보이는 광대소학지희(廣大笑謔之戲)가 토대가 되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판소리가 본래 여러 가지 놀이와 함께 판놀음으로 공연되던 것으로 판놀음이 있었던 신라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한다. 이렇게 광대 집단에 의해 시작된 판소리는 소리꾼과 청중의 적극적인 참여로 완성되는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판소리는 전라도를 중심으로 충청도, 경기도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전승되어 지역적 특징에 따른 소리제를 형성하고 있다. 전라도 동북지역의 소리제를 동편제(東便制)라 하고 전라도 서남지역의 소리제를 서편제(西便制)라 하며, 경기도와 충청도의



2

소리제를 중고제(中古制)라 한다. 동편제의 소리는 비교적 우조(羽調)를 많이 쓰고 발성을 무겁게 하고 소리의 꼬리를 짧게 끊고 굵고 웅장한 시김새로 짜여있지만 서편제는 계면조(界面調)를 많이 쓰고 발성을 가볍게 하며, 소리의 꼬리를 길게 늘이고 정교한 시김새로 짜여 있다.

한편 중고제는 동편제 소리에 가까우며 소박한 시김새로 짜여 있다. 판소리는 우리나라 시대적 정서를 나타내는 전통예술로 삶의 희로애락을 해학적으로 음악과 어울려서 표현하며 청중도 참여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며 판소리 다섯마당이 모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판소리는 우리 역사와 애환을 함께해온 우리문화의 정수로 그 독창성과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2003년 11월 7일 유네스코 제2차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결집’으로 등재되었다. **창**

1. 전남 완도군 청산면 청산도 유채밭 정자에서 판소리 공연팀이 영화 ‘서편제’ 속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

2. 전북 고창 판소리박물관에 있는 동리 신재효(1812~1884) 흉상. 신재효는 고창에 집을 짓고 말년까지 머무르며 구전으로 명맥을 유지해 오던 판소리 여섯마당(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변강쇠가, 수궁가, 적벽가)을 집대성하고, 조선 최초의 여류 소리꾼 진채선 등 많은 제자를 배출했다.



CONTENTS

2017. 07



- 02 한국의 얼** 삶의 히로애락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민중의 노래 '판소리' 지식층 서민 문화 모두 담아내... 소리꾼과 청중의 적극적 참여로 완성
- 04 특집** 한민족공동체 발전방안 모색한 '2017 세계한인학술대회' 성료 17개국 전문가 150명, 동북아시아 동포 역할과 외연확대 등 정책제안
- 06 화제**王大통령,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 "북핵해결 최우선" 합의 한반도 이슈서 '주도권' 확보 성과... 한미FTA 재협상 '숙제'
- 08 기획** '중동건설'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했던 바레인 한인사회 한국 근로자는 떠났지만 그들이 흘린 땀, 랜드마크 건축물로 남아
- 10 글로벌 코리아** 스위스 · 리히텐슈타인 선거구에서 압승한 조아킴 송 포르제 1천525대 1 경쟁률 뚫고 선발된 조니 김 씨 18년간 한국과 일본 오가며 소리 익힌 안성민 씨
- 12 동포소식** 헝가리 19개 한류동호회 뭉쳐 'Han-You 문화재단' 창립... 법인 설립 해외 첫 사례 외
- 15 동포 캘린더** 8월 워싱턴서 한미 과학자 1천 명 모이는 과학기술학술대회 외
- 16 유공동포** '친절택시의 대명사' 일본 MK택시 창립자 유봉식 씨 "MK택시 성공은 고객서비스와 직원복지 향상 위해 노력한 결과"
- 17 주목! 차세대** 차세대 동포 6명이 세운 식품 벤처기업의 첫 사업 '룩키랩스터' "사는 곳 달라도 꿈은 하나... 세계적 브랜드로 키우겠다"
- 18 지구촌 통신원** 반세기 전 애국가에 갈채 안긴 안익태, '논개'로 터키와 재회 안 선생 몸담았던 터키 오케스트라, 수교 60주년 콘서트서 애국가 · 논개 연주
- 19 한민족 공감** "켈로 부대원 부친 기리려"... 특전사 찾은 한국계 美 예비역 여군 모니카 스토이 예비역 대위 "6·25전쟁 널리 알릴 것"
- 20 OKF 뉴스** 전 세계 한인회 사무국장 평창서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외
- 21 동포의 창** 싱가포르 박물관서 돌보인 한국어 도슨트의 활약 '조선왕조의 예술과 문학' 전시에 쏠린 뜨거운 관심 채혜미 재외동포의 창 싱가포르 통신원 · 아트 저널리스트
- 22 우리말 배워봅시다**
- 23 동포문학** 나는 내가 효자인 줄 알았습니다 김선희 _ 중국 _ 2016 동포문학상 시부문 가작
- 24 고향의 맛 · 멋** 맑은 국물, 부드러운 고기, 깔끔한 맛의 향토음식 '나주곰탕' 뼈 없이 고기만으로 고아낸 국물... '토렴'으로 밥알 하나하나에 깊은 맛
- 26 재단공지**



표지 이야기

6월 27~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한인 학술대회'는 전 세계 17개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재외동포 연구가와 NPO 활동가들이 참가해 동포사회의 현황을 진단하고 동북아시아 재외동포 역할 등에 대해 바람직한 정책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



발행인 : 주철기 **등록번호** : 문화-라 08249
발행처 :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전화 3415-0100 팩스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 재외동포재단 홍보조사부 prc@okf.or.kr
제작 : 연합뉴스 **인쇄** :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세계 72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웹진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www.korean.net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발간되는 '재외동포의 창' 웹진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민족공동체 발전방안 모색한 ‘2017 세계한인학술대회’ 성료

17개국 전문가 150명, 동북아시대 동포 역할과 외연확대 등 정책제안

재외동포재단 주최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전 세계 17개국의 학자와 비영리민간단체(NPO) 활동가 150여 명이 모여 한민족공동체 발전방안을 모색한 ‘2017 세계한인학술대회’가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며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렸다.

27일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한민족 네트워크는 대한민국의 큰 축복이며 국력의 외연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동북아시대 평화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며 “다양한 현황을 논의하고 정책 제언을 통해 동포사회 역량을 높이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북아 평화 정책에 기여할 무대 마련 강조

개회식에 이어 ‘동북아시대 재외동포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획세션 I에서 발제자로 나선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국이 중시하는 나라에서 오피니언 리더로 활약하는 재외동포가 동북아 평화 정책에 공헌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6자회담국 거주 동포 중 법조계, 정관계, 언론·학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정기적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고 이 중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동포 전문가가 전략적 대화를 나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형성해 거주국과 한국에 정책 제언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계일 중국 연변대 교수는 “동북아 지역의 공존 번영을 위한 핵심 과제는 북핵과 이를 둘러싼 한반도 문제의 해결”이라며 “정치적 갈등이 첨예할수록 경제적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문제를 빨리 푸는 지름길인데 그 역할의 책임자가 바로 조선족”이라고 강조했다.

김계르만 카자흐스탄국립대 교수는 “카자흐스탄을 비롯해 CIS와 러시아에서 엘리트로 활동하는 고려인은 남북문제에서 잠재적인 중재자 활동을 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참가자들은 북핵·사드 문제 등 첨예한 갈등이 있는 사안에 대해 미국·중국 동포 전문가 간의 회의를 연 2회 개최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귀환동포·입양인도 재외동포의 외연

모국으로 돌아오는 귀환 동포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정책 대상에 국내 체류 조선족·고려인과 해외 입양 한인, 제3세계 거주 탈북민, 재일 조선적(朝鮮籍) 등을 포함해 재외동포의 외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곽채식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장은 “70만 재한 조선족과 4만여 명의 국내 고려인은 체류 규모와 경제적 역할 면에서





재단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세계한인학술대회'는 전 세계 17개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재외동포 학자와 NPO 활동가들이 참가해 글로벌 동포사회의 현황을 진단하고 동북아시아 재외동포 역할과 동포사회 외연 확대 등 바람직한 정책 방향 등 비전을 제시했다.



4

한국 이주민 사회의 중심적 위치에 있음에도 체류 자격·교육·복지 등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인진 고려대 교수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동포가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지역적 분류 기준인 '재외'에 국한하지 않는 관점에서 동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세대의 정체성 유지와 관련해 권오정 일본 류큐쿠대 명예 교수는 “동포 출신이 한국학교 등 차세대 교육에 나설 수 있도

록 교사 양성 과정을 마련하고 가정교육 강화를 위해 1.5세나 2세인 부모의 모국 연수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8~29일 이틀간 북미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독립국가연합(CIS)·러시아, 중남미·동남아, 유럽·오세아니아 등 6개로 나눠 진행한 지역세션에서는 주류사회로 동화되는 차세대의 한민족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한글학교 육성 등 교육 강화를 강조하는 주장들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29일 폐회사를 통해 “전 세계에서 모인 동포 전문가들이 더 나은 글로벌 한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힘 없이 대화하고 토론한 시간이었다”며 “이번 대회에서 분야별·지역별로 제안된 발전 방안은 앞으로 동포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3

1. 대회는 기획 세션, 지역 세션 등으로 구분해 동북아시아 재외동포의 역할과 지역별 동포사회 현안을 논의했다.
2. 학술대회 기간 참가자들은 다양한 의제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3. 국내외 재외동포 학자와 NPO 활동가 등이 참석한 이번 대회에서는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4. 재외동포재단 주최 '2017 세계한인학술대회'에는 17개국에서 150여 명의 재외동포 전문가가 참석했다.

文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 “북핵해결 최우선” 합의

한반도 이슈서 ‘주도권’ 확보 성과... 한미FTA 재협상 ‘숙제’



문재인 대통령은 6월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 대통령은 미국의 모든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반도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일정한 조건이 되면 전시작전권을 조속히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교역분야에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하기로 공약하는 동시에 고위급 경제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양 정상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공동성명은 ▲한미동맹 강화 ▲대북 정책 공조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공정한 무역 ▲여타 경제분야 협력 강화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적극적인 협력 ▲동맹의 미래 등 6개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북핵 문제와 관련,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 최대의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올바른 여건 아래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열린 입장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대북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외교의 수단이며, 비핵화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동성명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고,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했다는 점을 명시했다.

청와대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미 측의 지지를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고위급 전략협약체를 구성해 비핵화 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방안 등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그러나 대화의 기반도 강력한 안보태세에 기초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 최초로 미국의 핵과 재래식 무기 등 모든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대한민국을 방어할 것임을 재확인했고, 북핵 위협에도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한 기존 입장도 확고히 했다. 양국은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조속히 달성하고 동맹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연합방위 능력을 주도하기 위한 우리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를 위해 한미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은 상호 운용이 가능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및 여타 동맹 시스템을 포함해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탐지·교란·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능력을 지속해서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이야말로 동맹의 모범’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안보·국방·경제 등 실질협력과 글로벌 협력 분야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한미는 양국 간 ‘상호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하기로 약속했다.

문 대통령,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지원조직 확대 약속

문 대통령은 재미동포 간담회에서 “재외 교포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과 동포들의 안전으로, 재외국민보호법을 만들고 지원조직을 확대하겠다”며 “테러·범죄·재난으로부터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고, 통역이나 수감자 지원 법률서비스를 위해 영사인력을 확충하고, 전자행정으로 영사서비스를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젊은 동포들이 차세대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며 “우리 말과 글을 지킬 수 있도록 한글학교를 지원하고 한국문화를 접할 기회를 확대하겠다. 자녀들이 민족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재미동포 간담회서 “모두가 촛불로 정권교체 한 대한민국 존중”

문 대통령은 7월 1일(현지시간) 낮 미국 워싱턴D.C. 캐피탈 힐튼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방미 성과가 아주 좋다”며 “우리 두 정상 간에 깊은 우의와 신뢰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조국의 새 정부는 해외에서도 함께 촛불을 들어준 동포 여러분의 염원으로 출범했고, 그 힘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며 “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담당할 수 있었던 것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그 힘이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제가 만난 미국 정부 관계자와 정치인 모두가 촛불 혁명으로,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한 대한민국을 존중해줬고 그런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저를 대접해줬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해외 동포 여러분은 제게 큰 힘이 됐다”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재외국민 투표율을 언급한 뒤 “높은 투표율의 중심에 당당하고 품격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동포 여러분의 간절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

1.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6월 30일 오전(현지시간)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약속하고 있다.

2. 문재인 대통령이 6월 3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국무회의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중동건설’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했던 바레인 한인사회

한국 근로자는 떠났지만 그들이 흘린 땀, 랜드마크 건축물로 남아



1



2

1. 바레인 국립 전시회장에서 전통음악을 공연하는 현지인들.
2. 바레인 수도 마나마 야경.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200만 명 수준에 달하고 이중 근로자는 100만 명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들의 본국 송금액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연간 1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에서 고생하면서 번 돈을 조국에 두고 온 가족 친지에게 송금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불과 수십 년 전 한국인 근로자의 모습이 겹쳐진다. 60년대 월남전에서 시작된 해외건설 시장은 태국 등 동남아와 이란을 거쳐 중동(中東) 산유국으로 이동했고 한국의 건설인력도 함께 움직였다. 열사(熱沙)의 땅 건설현장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번 외화는 한국 경제성장 신화를 이루는 데 기여했다.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진 중동국가들의 한인사회는 부침이 심할 수밖에 없었다. 터 잡고 대(代)를 이어 사는 전형적인 이민이 아니라 건설 공사가 시작되면 몰려들었다가 공사가 끝나면 훌훌 떠나버린다. 소수의 자영업자가 터줏대감처럼 한인사회를 지키게 된다. 중동 바레인이 그렇다. 면적 765km²로

서울시보다 조금 큰 정도의 소국이지만 한국의 중동 건설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 작지 않다. 현대건설은 1970년대 바레인을 전진기지로 삼아 사우디 동부 담맘 항구 건설공사 인력을 지원했다. 현대가 지은 선박 건조 및 수리시설(드라이독)은 바레인으로서의 대역사였다. 경남기업이 왕궁 공사에 참여했고 대림건설은 일본업체가 수주한 바레인 가스플랜트 공사에 동참했다. 이밖에도 문화청 청사, 바레인결프대학, 디플로마트호텔, 아랍뱅크코퍼레이션 본부 등 수도 마나마의 많은 랜드마크가 한국인 근로자들에 의해 지어졌다.

한국과 바레인은 올해로 수교 41주년을 맞았다. 1970년대 중반 중동 건설붐이 피크를 이루던 시점에 정식 외교관계가 맺어진 것이다. 건설붐을 타고 바레인 무하라크 공항에 내린 한국인들은 건설인력만이 아니었다. 대사관을 비롯해 코트라, 대한항공이 지사를 개설했고 국내 언론사로는 처음으로 연합통신(현 연합뉴스)이 1981년 상주 특파원을 파견해 중동 전역을

Bahrain



3



4

3-4. '사막골프' 들어보셨나요? 바레인 아일리 사막 골프장에서 퍼팅하는 한인들과 단체 골프 모임.

5. 한인들이 한마음 체육대회를 가진 뒤 단체로 사진 촬영하고 있다.

6. 한인의 밤 행사에서 오한남 전 바레인 한인회장(오른쪽)이 상품을 전달하고 있다.



5



6

취재했다. 주변 GCC(걸프협력기구) 국가와 비교하면 원유 매장량이 빈약한 바레인은 사우디의 재정적 지원 이외에 독자적 생존방식으로 역외금융센터(offshore banking center)를 구축하고 비자발급, 통신시설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외환은행이 중동지역 본부를 마나마 중심가에 뒀고 한일은행이 지점을, 산업은행은 사무소를 개설했다. 건설인력이 러시를 이루자 대한항공은 직항편을 띄웠다. 사우디,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등의 건설현장으로 가려면 대한항공편으로 바레인으로 와서 로컬항공사인 걸프에어로 옮겨탔다. 바레인은 중동의 허브공항이었던 셈이다.

당시 바레인 한인사회의 주요 멤버로는 운동 코치를 빼놓을 수 없다. 1970~80년대 바레인 국가대표팀이나 클럽팀을 가르친 주요 코치로는 농구의 김동광, 탁구의 이대섭, 배구의 김승민(작고) 씨가 있고 이밖에도 군대와 경찰에 태권도를 가르치는 한국인 사범이 활동했다. 건설업체 이외의 한국업체로는 항만, 공항 하역 업무를 하던 영진공사가 있었고 이 회사는 지금도 바레인에서 영업하고 있다.

한국과 바레인은 1998년 금융위기로 인해 다음 해 대사관이 폐쇄되는 아픔을 겪었다. 대사관 폐쇄 즉시 바레인은 북한과 수교했다. 그러나 북한과 관계는 별 진전없이 지금은 북한의 쿠웨이트 대사가 겸임하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2011년 12년간의 공백을 딛고 주바레인 대사관을 재개설했다. 구현모 대사는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대사관 폐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바레인에서 완전히 잊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바레인 사람들은 한국의 자동차, 휴대전화, 첨단 가전 등 한국 상품, K-드라마, K-Pop 등을 통해 한국의 새로운 매력에 눈을 뜨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바레인에 거주하는 한인은 200여 명. 사우디 동부 담맘, 알코바, 다란의 건설 하청사업 한인 종사자 가운데는 가족을 바레인에 두고 양국을 연결하는 교량인 커즈웨이를 통해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다. 해상 가스터미널, 정유공장 리모델링 공사에 한국 건설업체가 독자 또는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면서 바레인의 한인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곳 한인사회를 이끄는 주역은 자영업자들로, 호텔, 식당, 부동산 사업을 하는 오한남 씨와 조경사업을 하는 광희진 씨, 베이커리 업종의 우종태 씨(현 한인회장) 등이다. 이들은 모두 전·현직 한인회장이다. 오한남 전 한인회장은 1983년부터 카타르, 두바이 배구감독에 이어 바레인 국가대표 배구감독을 지냈고 민주평통차문위 중동협의회 부회장, OKTA(세계한인무역협회) 바레인 지회장, 한글학교 초대 교장을 지내는 등 바레인 한인사회의 산증인이다. 오 전 회장은 "세종학당에서 한국말을 배우려는 현지인이 20~30명에서 70~80명으로 늘어날 정도로 한류 영향력을 실감한다"고 전했다. 현재 한국 건설업체가 진출한 중동 시장은 고기술 엔지니어링 분야로 과거의 토목, 주택 건설과는 차원이 달라졌다. 한류 바람으로 한국을 알리고 하는 현지 젊은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다. [정]

“입양아 출신 한국계 30대, 프랑스 하원의원 됐다”

스위스 · 리히텐슈타인 선거구에서 압승한 **조아킴 송 포르제**



34년 전 프랑스로 입양됐던 한국계 프랑스인 의사가 6월 18일(현지시간) 치른 프랑스 총선 결선 투표에서 하원의원으로 당선됐다.

주 스위스 프랑스 영사관은 스위스 · 리히텐슈타인 지역구에 출마한 조아킴 송 포르제(34) ‘레퐁블리크

앙마르슈’(REM · 전진하는 공화국)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74.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스위스 로잔에 거주하는 그는 앞서 6월 4일 치른 총선 1차 투표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창당한 ‘레퐁블리크 앙마르슈’의 후보로 나와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1차 투표에서 63.21%의 득표율로 15.68%를 기록한 현역 대중운동연합(UMP)의원을 크게 앞섰다. 투표율이 25%를 넘으면 결선투표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데 20%를 밑돌아 결선투표까지 가게 됐다.

프랑스는 재외국민의 뜻을 대변할 대표를 뽑자는 취지에서 2010년 해외선거구 제도를 도입했다. 하원 총 577석 중 스위스 · 리히텐슈타인 지역구를 비롯한 11석이 해외선거구에 배당돼 있다.

생후 3개월이었던 1983년 7월 서울의 한 골목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에 발견된 포르제 의원은 프랑스로 입양됐다. 어렸을 때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

계몽사상가 디드로가 태어난 랑그르라는 작은 마을에서 생활했는데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공부해야 했지만, 과학과 음악에서 재능을 보였다. 2004년 세상을 떠난 가라데스송 앙리 플레와의 만남도 그가 뇌과학을 연구하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무술을 배우면서 인체의 급소에 관심을 두게 됐다. 2008년 의학 공부를 위해 스위스로 왔던 그는 지난해 4월, 21세기 클럽 행사 때 마크롱을 처음 만났다.

마크롱은 그에게 스위스에서 자신을 위해 뛰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르탕지 인터뷰에서 마크롱 대통령에 대해 “나는 자유에 대한 그의 믿음, 개인의 해방, 평등한 기회를 위해 그가 해왔던 노력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NASA, 우주비행사 후보생에 美 특수부대 출신 한인의사 선발

1천525대 1 경쟁률 뚫고 선발된 **조니 김 씨**

새로 선발된 미국 항공우주국(NASA) 우주비행사 후보생 12명 가운데 해군 특수부대(네이비실) 출신 한인 의사가 이름을 올렸다. 6월 8일 NASA에 따르면 2017년 우주비행사 후보가 된 조니 김(33) 씨는 한인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무려 1천52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LA) 출신인 김 씨는 캘

리포니아 샌타모니카 고교를 졸업한 뒤 미 해군 특수부대에 입대해 100회 이상 전투작전을 수행했다.

중동에도 두 차례 파견됐으며 네이비실에서 실버 · 브론즈 스타상을 받기도 했다. 그는 샌디에이고대학에서 수학을 전공(석사)한 뒤 해군 ROTC 장교를 거쳐 하버드의대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응급실과 보스

턴 브리검 여성병원 등에서 의사로 일했다.

NASA가 공개한 프로필에는 김 씨가 군 특수부대, 응급의료 인턴 등 우주비행사로서 임무에 적합한 다양한 경험을 갖춘 것으로 나타나 있다. 김 씨는 비영리 재향군인 조직 활동과 멘토링 봉사 등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1만8천300명이 지원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우주비행사 후보생에는 의사 2명을 비롯해 전역군인, 잠수함 장교,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 민간우주탐사업체 스페이스X 엔지니어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존슨 스페이스

센터에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의 입소 환영을 받았다. 김 씨 등 후보생들은 8월부터 2년간 NASA에서 우주비행사 훈련을 받는다. 이후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연구 업무, 우주선 오리온(Orion)에서 심(深)우주 탐험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오사카에서 석달에 한번 판소리 공연하는 재일동포 3세 18년간 한국과 일본 오가며 소리 익힌 안성민 씨

“처음에는 판소리 소리 자체의 힘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가사에 담긴 인생 이야기가 진짜 매력적이었습니다.” 18년간의 배움 끝에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이수자로 지정받은 안성민(51) 씨. 재일동포 3세인 안 씨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한국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어찌 보면 평범한 ‘일본인’이었다.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처음 배운 게 대학에서 같은 동포 3세들과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였다.

안 씨는 “선배들이 ‘네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뿌리도 모르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느냐’고 얘기했다”며 “그때부터 한국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선배 중 한 명이 준 판소리 테이프를 듣고 완전히 반했다”고 돌아섰다.

그는 판소리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일본 여기저기를 돌아봤으나 배울 만한 곳이 없었다. 게다가 자유자재로 소리를 내려면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말에 포기할 생각도 했다. 그러던 1998년 판소리를 배우겠다는 목표 하나로 하던 일도 그만두고 무작정 한국으로 왔다.

광주에서 1년 반 정도 윤진철 명창을 사사한 후 한양대 대학원 국악과에 입학했다. 남해성 명창이 매년 구룡계곡에서 진행하는 여름 산공부 캠프에 2001년 처음 참여한 이후

올해까지 매년 이 캠프에 참가하며 판소리를 배웠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2002년 다시 일본으로 돌아간 그는 아직 배움이 부족하다 느꼈다. 직업을 대학 강사로 한 것도 방학 때인 여름에 한국에 오기 위해서였다.

안 씨는 일본 오사카에서 석 달에 한 번씩 ‘안성민 판소리 라이브’ 공연을 지금까지 20여 차례 진행했으며 판소리 ‘수궁가’ 완창 무대도 가졌다. 일본 내에서는 판소리에 대한 관심이 크진 않지만, 젊은 관객들도 점차 늘고 있다고 전했다.

안 씨는 “소리 자체의 힘이 처음에는 크게 느껴졌지만, 배우면 배우수록 인생의 지혜, 갈등, 애정, 분노 등 사람 사는 이야기가 담긴 판소리 세계가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다음 목표는 자신과 같은 재일동포의 이야기를 판소리로 만드는 것이라고 포부를 피력했다. **창**



헝가리 19개 한류동호회 뭉쳐 'Han-You 문화재단' 창립... 법인 설립 해외 첫 사례



헝가리 한유문화재단 창립식 장면 (헝가리 한국문화원 제공)

유럽 중동부 내륙의 헝가리 내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동호회들이 모여 사단법인 '한유문화재단' (Han-You Foundation)을 만들었다고 6월 2일 현지 한국문화원이 전했다. 한국영화·태권도·서예·K-팝·한국무용·수공예·가야금 등 19개 동호회는 5월 26일 한국문화원에서 재단 창립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한류동호회는 많이 있지만, 이번처럼 다양한 동호회가 뜻을 같이해 현지 정부에 사단법인 설립 신고를 하고, 활동을 시작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문화재단의 이름인 '한유'는 '한국(Han)과 당신(You)을 잇는다'는 뜻이며 헝가리어로 '한류'의 발음과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해 지었다고 한다. 회원은 200명이 넘으며, 초대 회장은 한국무용 동호회인 '헝가리 무궁화무용단'을 이끄는 주잔나 에스테르고미 단장이 맡았다. 에스테르고미 회장은 창립식에서 "한국문화가 좋아 이를 배우고 즐기려는 동호회가 많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서로에 대한 정보도, 교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로 뭉치는 일도 없었다"며 "서로 하나가 돼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를 활성화해보자는 취지로 재단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창립 행사에는 수도 부다페스트와 지방 도시에 있는 문화재단 참여 동호회 대표와 회원 등 70여 명이 참가했다. 한유문화재단은 홈페이지(<http://hanyou.hu>)를 오픈해 다양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한편 책자나 리플렛 등을 만들어 단체를 홍보해 더 많은 회원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아르헨티나서 한인사회 발전 위한 세미나 현지 사회 참여, 기부문화 확산 등 필요



5월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아바스토 호텔에서 열린 '한인사회 미래 및 발전을 위한 세미나'. 한인인 현지 정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인 이민 52주년을 맞아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은 지난 5월 30일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아바스토 호텔에서 '한인사회 미래 및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한인회 임직원과 동포사회 지도자 및 현지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민사회 업무를 담당하는 클라우디오 베르나르두 법무인권부 인권다문화차관 등 현지 정부 관계자도 여럿 참석해 기조 발제를 했다. 추종연 대사는 개회사에서 "이제는 한인들도 아르헨티나 국민이라는 주인 의식을 갖고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해 현지 사회와 활발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베르나르두 차관은 "아르헨티나 이민정책은 과거와 달리 이민자의 민족성과 문화를 존중한다"며 "부에노스아이레스 시가 한인사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차카부코 공원 조성, 이민족문화축제 등은 이민사회와 정부 간 훌륭한 협력 사례"라고 치켜세웠다.

황지영 한인 차세대 변호사는 발전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 '주재국 투표 참여' '한국계 아르헨티나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아르헨티나 사회 참여와 기부문화 확산' '한인 사회 세대교체' 등을 주문했다. 세미나에는 이영선 재외동포재단 한상사업부장이 참석해 동포재단과 한상 청년 인턴십에 대해 소개했다.

고려인·에네켄 후손들, 모국서 ‘한식·뷰티케어’ 직업연수



7월 5일 경기도 오산대학교 본관 회의실에서는 '멕시코·쿠바 한인 후손 직업 연수 개회식'이 열렸다.

재외동포재단은 형편이 어려운 지역 차세대 한인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고려인과 에네켄(애니깽) 후손 56명을 초청해 3개월간 직업연수에 들어갔다.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고려인 44명은 인천재능대에서 9월 22일까지 직업 연수에 참여한다. 현지 창업 또는 취업을 위해 교육에 참가한 이들은 한식요리와 뷰티케어로 전공을 나눠 배우며, 뷰티케어는 헤어와 메이크업 과정을 별도로 분리해 교육받는다.

멕시코·쿠바 에네켄 후손 12명은 9월 27일까지 경기도 오산대에서 헤어·네일아트 기술을 습득한다. 재단은 쿠바에서 일본 강점기 상해임시정부로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던 독립유공자 호근덕 선생의 증손녀인 다니엘라 호 플레이타도 연수생으로 선발했다.

한인 5세대로 멕시코에서 온 제니퍼 유 씨는 “선조가 늘 그리던 고국서 마련해준 연수에 참가하게 돼 너무 기쁘다. 열심히 배워 멕시코에 한국 스타일을 전하는 뷰티샵을 열 것”이라며 “현지의 미혼모들에게도 이 기술을 전수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도 나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철기 재단 이사장은 “참가자들이 희망하는 직업을 고려한 맞춤형 연수로 한식 및 K-뷰티 전문가로 육성하는 게 목표”라며 “교육과 체험을 통해 모국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한인족으로서의 자긍심도 높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어 배우는 외국 초·중·고생 11만5천 명… 5년 새 78%↑



태국 마타움왓마갓꾸삿 중고등학교에서 열린 방콕 지역 한국어 제2외국어 채택 학교 학생들의 한글 쓰기 대회

세계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배우는 초·중·고 학생이 11만5천여 명으로 5년 새 5만여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9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어반을 개설한 외국 초·중등학교(고교 포함)는 2011년 695곳(22개국)에서 지난해 1천309곳(27개국)으로 88.3%(614곳) 증가했다. 학생 수도 6만4천611명에서 11만5천335명으로 78.5%(5만724명) 늘었다. 특히 중국은 한국어반 학생이 100명(3개교)에서 2천741명(19개교)으로 27배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어반 개설 학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으로 548곳이었고, 미국(155곳), 태국(82곳), 대만(74곳), 호주(70곳)가 뒤를 이었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수는 태국이 2만6천365명으로 최다였고, 일본(1만8천303명), 미국(1만4천705명), 호주(9천235명) 순이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신청자는 시행 첫해인 1997년 2천692명에서 2012년 15만1천66명, 지난해 25만141명으로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종로학원하늘교육 관계자는 “한류 열풍과 한국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 위상 제고 등 영향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어를 학습하려는 학생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고려인 강제이주 발자취 기록한 'Colors of Arirang' 출간



'아리랑 로드 10만km 대장정의 기록'이라는 부제의 'Colors of Arirang'과 대장정에 참여한 이정면 교수(왼쪽 세 번째)와 답사대원.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을 맞아 연해주와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발자취를 답사한 내용을 담은 'Colors of Arirang'(이지출판사, 256쪽)이 최근 출간됐다. '아리랑 로드 10만km 대장정의 기록'이라는 부제의 이 책은 남북한과 중앙아시아 지역 아리랑을 다룬 책(Arirang of Korea, 2013년)을 통해 소개했던 이정면(92) 미국 유타대 명예교수와 사회사업가 류승호(72), 사진작가 류승률(67), 작가 서용순(58) 씨 등 4명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외 고려인의 거주지를 찾아 나선 내용을 사진과 글로 담았다.


이 교수는 "153년의 이주역사를 가진 고려인은 1937년 러시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 각지로 강제이주 되었고 구소련 붕괴 후 또다시 여러 나라로 흩어지는 등 여전히 이산의 아픔을 겪고 있다"며 "이들이 이역만리 타향살이의 고달픔을 달랬던 민족의 노래 '아리랑'의 흔적을 찾아서 기록한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독립운동가였던 계봉우 선생과 흥범도 장군 묘지, 강제이주 첫 정착지 우수토베, 우즈베키스탄에서 노력영웅 칭호를 받았던 김병화 박물관, 강제이주 1세대를 돌보는 아리랑요양원, 망향의 한이 서린 사할린 코르사코프 등 고려인이 사는 마을 곳곳을 방문해 지금도 즐겨 부른다는 아리랑을 채록했다. 서 작가는 "고려인은 대부분 우리말을 잊었음에도 아리랑만큼은 정확하게 불렀다. 우리는 대부분 1절만 하는데 이들은 4절까지 부르는 것에 깜짝 놀랐다"며 "노래에서 고국과 고향을 잊지 않으려는 마음과 슬픔을 견뎌온 힘이 느껴졌다"고 감흥을 전했다.

옛 소련권 고려인 언론 한자리에... 모스크바서 포럼



'고려인 동포 언론사 초청 미디어포럼'에 참석한 언론 대표와 고려인·러시아 인사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5월 31일 옛 소련권 고려인 동포 언론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오랜 전통을 잇는 고려인 언론의 발전 방안과 한-러 관계 증진을 위한 동포 언론의 역할 등을 토론했다. 올해 5월로 20주년을 맞는 러시아 모스크바의 고려인 신문 '로시이스키에 코레이치'(러시아 고려인)가 주러 한국문화원(원장 김일환)과 공동으로 '고려인 동포 언론사 초청 미디어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옛 소련 지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카자흐스탄의 '고려일보'(옛 레닌기치)와 카자흐스탄 TV·라디오 한국어 방송,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신문', 키르기스스탄의 '일치' 등 중앙아 지역 언론과 모스크바의 '러시아 고려인', 극동 우수리스크의 '고려신문', 사할린의 '새고려신문' 및 사할린 라디오 한국어방송, 남부 로스토프나도누 지역의 '고려사람' 등 러시아 지역 언론 대표들이 참석했다. 러시아 주요 언론인 '로시스카야 가제타', '스푸트니크 통신',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의 한반도 데스크들도 패널로 참석했다.

러시아 고려인 신문의 장 발렌틴 대표는 "1997년 5월 창간된 우리 신문의 20주년 기념일을 맞아 옛 소련 각지의 고려인 언론사 대표들이 함께 모여 언론 발전 문제와 고려인 언론이 한-러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할 방안 등을 함께 토론하게 돼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포럼에 참석한 박노벽 주러 한국대사는 축사에서 "러시아 언론사이자 한민족 언론사인 고려인 언론을 지원하기 위해 주재국 정부와 함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8월 워싱턴서 한미 과학자 1천 명 모이는
 과학기술학술대회**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회장 서은숙, KSEA)는 8월 9~12일 미국 워싱턴에서 '2017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UKC 2017)를 개최한다. '협력을 통한 융합과 혁신'을 주제로 열리며 한국과 미국 등에서 과학기술자, 교수, 기업가, 정책 결정자, 과학기술 전공 학생 1천여 명이 참가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창출 정책 포럼' '미세먼지 포럼' 등을 통해 최근 글로벌 화두로 거론되는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할 예정이다.



세계한민족여성재단 신임 이사장에 재미동포 서진화 씨

세계한민족여성재단(KOWINNER)은 서진화 부이사장이 7월 1일부터 임기 2년의 신임 이사장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6월 12일 밝혔다. 미국 시카고 한인 전문직여성협회 회장인 서 이사장은 "문화예술·차세대·사회복지 등 기존 분과를 확대하고 신설 분과도 마련해 회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한민족 여성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조직 강화에 나설 것"이라며 "무엇보다 여성 경제인 양성 등 차세대 육성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연아 마틴 가 상원의원
 "韓-캐나다 관련 사연 보내주세요"**

한인 최초의 캐나다 연방 상원의원이자 보수당 상원 원내 수석 부대표인 연아 마틴(한국명 김연아·52) 의원은 캐나다 건국 150주년을 기념해 '한국-캐나다 이야기 150' 프로젝트를 전개한다고 6월 2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지난 150년간 한국과 캐나다의 역사를 비롯해 양국 관계와 관련한 인물이나 단체, 조직, 개인 이민사 등의 이야기를 온라인 사이트에 담아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한인 1세는 물론 1.5세대의 많은 참가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고려인 관련 단체
 '강제이주 80주년 기억과 동행 위원회' 발족**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을 맞아 관련 단체들이 모여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모임을 출범시켰다. 동북아평화연대(이사장 도재영), 고려인지원센터 너머(이사장 조영식), 광주광역시 고려인협동조합(이사장 이천영), 아시아발전재단(상임이사 조남철) 등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월 17일 국회에서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기억과 동행 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상임대표에는 도재영 이사장이 선임됐다.



**시드니 한인회장에 류병수 씨...
 한인 양로원 건립 등 약속**

제31대 호주 시드니 한인회장에 류병수 어번리드컴한인사업자협의회 회장이 무투표 당선됐다. 류 당선자는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고 취임 선서를 하면 임기 2년의 회장에 오른다. 5월 19일 시드니 한인회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은 그는 "한인들을 위한 양로원 건립, 한인회 직업 차일드케어센터 설립, 한인회 직업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 한인회 재정 자립 및 한인 차세대의 동창 활성화 등을 임기 내에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장에 승은호 회장 연임

아시아 19개국 한인회를 대표하는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신임 회장에 승은호 현 회장이 추대됐다. 연합회는 6월 21일 미얀마 양곤 노보텔에서 열린 '2017 아시아 한인회장대회' 중간에 총회를 열어 승 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앞으로 3년 동안 이 단체를 이끌 승 신임 회장은 "중국의 화상을 벤치마킹한 것이 한상인데 결속력이 아직 부족하다"며 "한인회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구축해 한인과 모국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친절택시의 대명사’ 일본 MK택시 창립자 유봉식 씨

6월 8일 88세를 일기로 별세한 재일동포 유봉식(일본명 아오키 사다오)씨는 일본에서 ‘친절 택시’의 대명사로 손꼽혔던 MK택시 창립자이다. 유 씨는 택시기사의 생활개선에 관심을 기울이는가 하면 고객에 대한 친절운동을 펼치는 등 선구적 경영을 한, 재일동포 성공신화를 쓴 인물로 꼽힌다. ‘택시업계의 풍운아’였던 그는 1928년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 1943년 일본으로 건너갔다. 교토(京都) 리쓰메이칸대학 법학부를 중퇴한 뒤 주유소 경영을 거쳐 1960년 택시 10대로 미나미택시를 설립했다. 이후 가쓰라택시를 인수, 1977년에 합병하면서 두 회사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 MK택시를 만들었다.

그는 일본 택시업계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이끌었다.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인사를 하지 않으면 요금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장애인을 우선 승차시키는 제도를 처음 도입한 회사도 MK였다. 관행에 대한 ‘도전’으로도 주목받았다. 택시업계에서 이어지던 ‘동일지역 동일요금’에 문제를 제기하고 가격 인하를 당국에 요청, 법정 싸움까지 가면서 규제를 무너뜨렸다. 1982년의 이 사건은 ‘전대미문’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요청이 기각되자 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결국에는 1985년 오사카 지방재판소에서 승소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당국의 규제 완화를 앞당기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유 씨는 “(상대방을) 똑같이 줄 세우



일본에서 ‘친절 택시’의 대명사로 손꼽혔던 MK택시 창립자 고(故) 유봉식 씨.

“MK택시 성공은 고객서비스와 직원복지 향상 위해 노력한 결과”

는 인허가 행정에선 기지를 발휘할 수 없고 언젠가 고객으로부터 버림받고 만다”는 위기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오일 쇼크로 고객이 감소하던 상황에서 “양손을 맞대 인사해야 할 대상은 관청

(정부)이 아니라 승객”이라고 생각한 그는 무모하다는 지적을 받을 일인 요금 인하 소송에 나섰다.

획기적 변화를 가져와 아이디어맨으로도 평가받았다. ‘총알택시’로 불리며 난폭한 운전이 판쳤던 배경에는 운전기사의 주택난이 있다고 보고 업계 최초로 사택 정비에 나섰다. 택시 한 대마다 수익을 관리하는 독자 경영시스템과 디자인을 강조한 제복도 도입했다. 교토 이외에 오사카(大阪), 도쿄(東京) 등에도 진출했다. 유 씨의 후반 인생은 택시에서 금융 분야로 무대를 옮겼다. 2001년 재일한국인 계열 긴키산업신용조합 회장으로 취임했다. 2004년에는 부적절 용자로 지역 재무국으로부터 업무개선명령을 받기도 했던 그는 “세습인사를 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아 2013년에 물러났다. MK그룹 경영에선 2005년에 손을 뗐고, 현재 사장은 장남인 노부야키(信明) 씨가 맡고 있다.

고인은 2003년 한국에서 가진 강연에서 “MK택시가 성공한 것은 끊임없이 고객서비스와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노사공존을 강조했다. 그의 성공신화는 한국 TV 프로그램에도 소개됐고 2004년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정]

차세대 동포 6명이 세운 식품 벤처기업의 첫 사업 ‘록키랍스터’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에서는 바닷가재 집게살이 두툼하게 올려진 샌드위치를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지난 3월 중순 문을 연 이 가게는 두 달 만에 연남동의 맛집으로 떠오르고 있다. 36㎡(11평) 남짓한 크기의 이 식당 사장은 박정희(34) 씨다. 그는 서울에 태어나 조리 특성화고교를 졸업하고, 군 제대 후인 지난 2008년 미국에 건너갔다. 코넬대 식품공학대에 들어가 식품 유통을 전공한 뒤 곧바로 현지 식품 무역 회사에 취직했다. 대학 재학할 때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호텔에서 레스토랑 매니저로도 일했다. 이후 무역회사를 거쳐 식품무역회사인 ‘애틀랜타 코퍼레이션’으로 자리를 옮겨 일하다 4년 만에 퇴직하고 샌디에이고에 있는 맥주학교에 다녔다. 이곳에서 수제 맥주 만드는 법을 배웠다.

그는 “지난해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주최 ‘제21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참가했다가 각국에서 온 차세대 6명이 의기투합했고, 그 결과물이 ‘더드림월드홀딩스’라고 소개했다. 협동조합 법인 ‘더드림월드홀딩스’는 박 사장을 비롯해 월드옥타 미국 뉴욕지회 박철민, 애틀랜타지회 김순원, 캐나다 토론토지회 이경선, 호주 시드니지회 김진한, 중국 상하이 지회 김동환 씨 등이 만들었다.

식품 관련 사업을 하는 이들 차세대는 ‘프랜차이즈를 통해 세계를 휩쓸어 보자’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 맛집으로 떠오르는 ‘록키랍스터’ 사장 박정희(좌) 씨.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들어선 ‘록키랍스터’ 1호점.


“

“사는 곳 달라도 꿈은 하나...
세계적 브랜드로 키우겠다”

”

고 뭉쳤고, 각각 1차 투자금 500만 원과 2차 투자금 1천만 원을 투자했다. 박 사장이 서울에서 무엇을 할지를 구상했고, 나머지 파트너들은 각자 거주국에서 온라인을 통해 지원 사격을 했다. 이들은 서로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머리를 맞대어 ‘록키랍스터’를 탄생시켰다.

박 사장은 4월 26~2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월드옥타 ‘제19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에 참가해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박기출 월드옥타 회장은 “이 회사는 재외동포 차세대들의 열정과 꿈이 모인 1호점”이라며 특별히 설명회 자리를 마련해 줬고, 직접 투자도 했다. 각국에서 온 회원들도 즉석에서 이 회사의 미래를 보고 투자의향서에 사인했다. 순식간에 1억7천만 원이 모였다. “개업 첫 달에 1천만 원, 두 번째 달에 1천2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나쁘지 않죠. 그런데 기쁜 일은 국내 유명 백화점에서 입점해달라고 먼저 제의가 온 것입니다. 7월 중순쯤에 이 백화점 푸드코트에 오픈을 해요. ‘록키랍스터’ 2호점입니다.” 

반세기 전 애국가에 갈채 안긴 안익태, ‘논개’로 터키와 재회



1



2

1961년 12월의 어느 밤, 터키 수도 앙카라의 오페라하우스는 이스메트 이뇌뉘 총리와 제말 귀르셀 대통령 등 터키 정·관계와 군부 지도자, 외교단으로 가득 찼다. 모두 터키 프레지덴셜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한국환상곡’의 개막 공연을 보기 위해 그 자리에 모였다. 그날 연주의 지휘자는 프레지덴셜심포니를 이끄는 마에스트로 안, 바로 한국환상곡(코리아 판타지)의 작곡가 안익태 선생이었다. 당시 현장에 함께 한 외교관 백상기 씨는 저서에서 그날의 감동을 이렇게 기술했다.

“연주가 끝나고 장내는 터져나가는 환호의 기립 박수 소리가 끝날 줄 몰랐다. 총리도 대통령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관중과 같이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대통령은 안익태 선생을 로열박스로 초청해 연주가 환상적이었다고 격찬하면서 가능하면 이스탄불, 이즈미르 등에서도 공연해 주기를 요청했다.”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은 한국과 터키의 인연 가운데 6·25 전쟁 참전이나

“

안 선생 몸담았던 터키 오케스트라, 수교 60주년 콘서트서 애국가·논개 연주

”

2002년 월드컵 경기 외에도 작곡가 안익태 선생을 빼놓을 수 없다.

안 선생은 1961년 2월부터 1년간 터키 대통령실 소속 프레지덴셜심포니오케스트라 지휘자를 지냈다. 그가 터키 프레지덴셜심포니의 지휘자로 활동했을 무렵 탄생한 곡이, 임진왜란 때 적장을 안고 남강에 뛰어들어 산화한 논개의 의거를 담은 교향시 ‘논개’다. 그로부터 55년이 흐른 6월 7일(현지시간) 밤, 안 선생은 ‘애국가’와 교향시 ‘논개’로 터키 청중과 재회했다.

안 선생이 몸담았던 터키 대통령 심포

1. 6월 7일 밤(현지시간) 터키 수도 앙카라에 있는 프레지덴셜심포니오케스트라 공연장에서 열린 수교 60주년 기념 ‘한·터 우정의 클래식 공연’ 안익태 선생은 1961년 2월부터 1년간 터키 프레지덴셜심포니에서 지휘자로 활동한 인연이 있다.

2. 한국·터키 수교 60주년 기념 ‘한·터 우정의 클래식 공연’에서 조윤수 주(駐)터키 대사(앞줄 가운데)와 에르신 에르친 터키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앞줄 왼쪽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서서 터키 국가를 경청하고 있다.

니오케스트라는 전용 공연장에서 한국인 성기선의 지휘, 피아니스트 한유니와 협연으로 안 선생의 두 곡을 연주했다.

‘수교 60주년 기념 한국·터키 우정의 클래식 공연’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콘서트에는 조윤수 주(駐)터키 대사, 에르신 에르친 터키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미카일 아르슬란 정의개발당(AKP) 의원, 시벨 외즈데미르 공화인민당(CHP) 의원 등 양국 인사와 앙카라 시민, 한인들이 참석했다.

터키 청중은 친숙한 시벨리우스나 파가니니의 곡보다 처음 접한 교향시 ‘논개’에 가장 뜨겁게 호응했다. **창**

하재림 연합뉴스 이스탄불 특파원

“켈로 부대원 부친 기리려”... 특전사 찾은 한국계 美 예비역 여군

“아버지는 전쟁 당시 북한에 계신 부모님과 형제를 만날 수 있다는 친구의 말에 켈로(KLO·Korea Liaison Officer)부대원이 되셨어요. 평양을 잘 알고, 책임감과 통솔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인정받아 중대장 직책을 수행하셨고요.” 한국계 미국인 모니카 스토이(최혜정·60) 미 육군 예비역 대위는 8년 전 세상을 떠난 부친을 이렇게 회고했다.

스토이 예비역 대위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8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특전사령부의 초청으로 사령부를 방문해 2009년 세상을 떠난 아버지 고(故) 최경진 씨를 기렸다. 이 자리에는 스토이 예비역 대위의 어머니 최혜숙(85)씨와 남편 팀 스토이(59·미 예비역 중령) 씨도 동행했다. 그의 아버지는 6·25전쟁 당시 켈로 부대에 소속돼 북한 지역에서 첩보 수집과 민간인 조종사 구출 임무를 수행했다. 평양 출신으로, 학업을 위해 서울에 혈혈단신으로 내려왔다가 변란을 맞았다.

“제 기억 속 아버지는 켈로 부대원으로 조국을 위해 임무를 수행한 일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셨어요.” 부친 최 씨는 북한군으로 위장해 활동하다가 그를 적군으로 오인한 미군에 체포돼 일주일 만에 풀려나기도 했다. 계급과 군번도 부여받지 못한 비정규군 신분으로 아군과 적군을 넘나들면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수행했다고 딸은 전했다. 켈로 부대는 전쟁 당시 주한 미 극동군사령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8일 경기도 이천의 특전사령부를 방문한 모니카 스토이(맨 왼쪽) 미군 예비역 대위가 어머니 최혜숙(중앙) 여사에게 한국의 유격대원과 미국의 특수부대원을 기리는 위령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6·25전쟁에 참전해 F-84 선더제트 전투기 조종사로 100회 이상의 작전임무를 수행한 유진 메클링(92, 맨 오른쪽) 예비역 대령도 이날 함께 했다.

모니카 스토이 예비역 대위 “6·25전쟁 널리 알릴 것”

산하 소속으로 오늘날 특수전사령부(특전사)의 모체가 된 한국군 최초의 유격군 부대다. 지난해 개봉한 영화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그 존재가 널리 알려진 바 있다.

최경진 씨는 전쟁이 끝나고 사업을 하다 1973년 가족과 함께 미국에 이민했다. 먼 타지에서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딸은 군인의 길을 선택했다. “원래 대학교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미국에서 동양인 여군 장교가 돼 이름을 떨치

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하시더라고요.” 스토이 예비역 대위는 1975년 미 육군으로 입관해 공수부대에서 현재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1991년 이라크전에 참전했으며 1996년 전역했다. 그는 전역 후 현재 미 3보병사단 전우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참전용사를 기리는 보은 사업을 하고 있다. 2012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특수부대 박물관에 켈로부대원들과 미 특수부대원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추모비 건립자금 전액을 기부하기도 했다.

스토이 예비역 대위는 “젊은 세대는 특히 6·25전쟁을 모른다”며 “미국에서 6·25전쟁과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널리 알리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

전 세계 한인회 사무국장 평창서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재외동포재단은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과 평창에서 '2017 한인회 사무국장 연수'를 개최했다.

북미, 유럽, 아프리카·중동, 중국, 일본 등 대륙별 한인 총연합회와 23개국 한인회의 실무를 맡은 사무국장 34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수는 동포사회를 이끄는 한인회 사무국장이 모국에 모여 재단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상호 교류와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 기간 사무국장들은 주철기 이사장과의 대화, 재단 부서장 간담회, 외교부와와의 대화, 대륙별 현안 토론회, 한인회 우수 운영사례 발표 등에 참가했다.

이들은 23일 강원도 평창을 방문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을 둘러보고 성공개최를 다짐하는 퍼포먼스도 열었다.

주 이사장은 "사무국장이 고국과 접점을 넓히고 네트워크를 구축한 이번 연수가 한인회 활성화와 한인사회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 세계 23개국 34명의 한인회 사무국장들이 6월 23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경기장 클러스터에서 올림픽 성공기원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해외취업 관심있나요? 한상기업 인턴십 순회설명회

재외동포재단은 국내 청년에게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자 모집을 위해 국내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상 인턴십은 재외동포 경제인이 참가하는 세계한상대회를 통해 구축된 한상네트워크를 활용해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려고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설명회는 6월 8~9일 광주 조선대, 전남대, 5·18 기념문화센터를 시작으로 서울 코엑스(10일), 부산 이비스엠베서더호텔(11일), 대구 영남대·경북대(12일), 엑스코(13일), 대전 한남대·충남대·대림관광호텔(14~15일)에서 열렸다.

재단은 설명회 참가자들에게 한상 인턴십 프로그램 소개, 해외 취업 관련 질의·응답, 일대일 상담 등을 진행했다.

한상 인턴십은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1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인턴 기간 매월 100만 원의 지원금과 보험·국내 사전 교육비 등이 지원된다.

주철기 이사장은 "국내 청년들의 해외진출 기회제공 및 차세대 한상 육성을 통해 한민족 경제 영토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인턴십의 취지"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재단은 6월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상 인턴십 3기 지원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세계한상대회 역대 대회장 라오스서 대회 해외 개최 등 발전 방안 모색

재외동포재단 주최로 동포 한상(韓商)과 모국 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을 모색해온 세계한상대회의 역대 대회장들이 모여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라오스에서 열렸다.

6월 12~14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의 랜드마크 크호텔에서 개최된 '역대 세계한상대회 대회장 회의'에는 한창우(일본, 3차), 승은호(인도네시아, 7차), 홍성은(미국, 9차), 조병태(미국, 11차), 홍명기(미국, 12차), 박종범(오스트리아, 13차), 오세영(라오스, 15차), 임도재(가나, 16차) 대회장과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역대 대회장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행사 기간 대회 발전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세계한상대회에서 발족한 '글로벌한상드림' 기금을 2019년까지 100억 원으로 늘린다는데 의견을 모았고, 재단 내 마련한 사무국에서 모국 기여 방안 등 청사진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한상대회서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고, 국내에서만 열리던 대회를 2019년부터 해외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역대 대회장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행사 기간 대회 발전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세계한상대회에서 발족한 '글로벌한상드림' 기금을 2019년까지 100억 원으로 늘린다는데 의견을 모았고, 재단 내 마련한 사무국에서 모국 기여 방안 등 청사진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한상대회서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고, 국내에서만 열리던 대회를 2019년부터 해외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세계한상대회 역대 회장들이 6월 12~14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의 랜드마크호텔에서 대회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싱가포르 박물관서 돋보인 한국어 도슨트의 활약

‘조선왕조의 예술과 문화’ 전시에 쏠린 뜨거운 관심

채혜미 재외동포의 창 싱가포르 통신원 · 아트 저널리스트

싱가포르의 '아시안 문명 박물관'에서 7월 23일까지 열리는 '조선왕조의 예술과 문화' 특별전이 한류의 영향으로 K드라마에 탐닉하는 현지인들에게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중에서도 관람객에게 전시물을 설명하는 한국어 도슨트의 활약이 돋보여 전시장을 찾는 한인들의 어깨를 우쭐거리게 만든다.

“이 전시품은 드라마 사임당에서 보았던 것인데 여기서 다시 보니 반갑네요”라며 고개를 끄덕이는 현지인의 반응을 보며 ‘이제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 역사를 각자의 안방에서 즐기면서 배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싱가포르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이 5개가 있다. 도슨트가 되려면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과한 후 6개월 동안 영어로 도슨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매년 새로운 전시내용에 대한 강의를 듣고 연구하고 각 나라의 방문객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영어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을 구사하는 각 나라의 도슨트가 약 300여명이 된다.

이 가운데 20여명의 한인 도슨트들이 2013년에 모임을 발족했고, 이후 200여회의 한국어 해설프로그램인 '미지움 산책'을 운영해오면서 한인사회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몇 년째 꾸준히 도슨트를 하는 이들은 어떤 보람을 느끼는지 궁금했다.

“대부분의 한인들은 싱가포르에 살아도 이 나라 역사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도슨트를 하면서 작가와 작품을 통해 동남아 각 국가를 이해하게 됐다. 예술분야 만이 아니라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도 생겼고 덕분에 사교가 성숙해지는 경험도 했다”고 이혜진 도슨트는 경험을 털어놓았다.

타 국가와 타민족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는 한지원 도슨트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도슨트들을 만나면서 상대방의 문화에



싱가포르의 '아시안 문명 박물관'에서 열린 '조선왕조의 예술과 문화' 특별전을 설명하는 한국어 도슨트

역사에 대한 이해와 존중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런 경험이 모국의 역사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이끌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아 도슨트는 “해외에 나와서 사는 다양한 민족들을 만나 보니 현지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겠다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많았다. 자신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그들과 함께 활동하며 적극성을 배웠고 모국의 문화를 이웃과 나누는 일에 보람을 갖게 됐다”고 기뻐했고, 팽수진 도슨트는 “문화적 갈등에 목마른 한인들에게 모국어 해설로 가뭄의 단비의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자부했다.

한국어 도슨트의 활약은 현지인뿐만 아니라 한인들에게도 박물관으로 발길이 이어지도록 만들고 있다. '조선왕조의 예술과 문화' 특별전을 찾은 한인 김난영 씨는 “궁금한 점을 우리말로 마음껏 질문을 할 수 있는데다 박식함을 바탕으로 자상한 해설을 해주어 감동이 있는 관람이 됐다”며 “한국어 도슨트의 활약 덕분에 어깨가 절로 우쭐거리린다”고 고마워했다.

한국어 도슨트들은 각 국의 도슨트와 함께 전시를 앞두고 조선시대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는 리서치팀을 운영하는 등 사전 준비 과정에서도 한국을 알렸다. 열정이 넘치는 이들의 활약으로 싱가포르에서는 박물관 관람이 늘 즐겁다. **창**

바른 말 고운 말

고유 명사의 띄어쓰기

맞춤법 규정에는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이는 호칭어나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명에서 성과 이름은 별개 단어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서로 띄어 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지만,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들에서는 성명을 붙여 쓰는 것이 통례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붙여 쓰는 것이 관용 형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우리 민족의 성은 대부분 '김, 이, 박' 등과 같이 한 글자로 되어 있어서 보통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성과 이름은 붙여 쓰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는 띄어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성 가운데 '남궁' 이라든가 '황보' 같이 두 글자로 되어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남궁지, 황보영' 같은 성명의 경우, 성과 이름을 붙여 쓰면 각각 성이 '남' 씨인지 '남궁' 씨인지, 그리고 '황' 씨인지 '황보' 씨인지 구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성과 이름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을 때는 띄어 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장안에 화제

어떤 일이나 작품 같은 것들이 많은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될 때 '장안에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또는 '서울 장안에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고 말합니다. 여기서 '장안' 이라는 말은 수도라는 뜻으로서의 '서울' 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장안' 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원래 '장안(長安)' 은 옛날 중국 한나라의 수도였던 곳으로 한나라가 이곳에 도읍을 정한 뒤 당나라 때까지 도읍이었던 곳입니다. 조선 시대 때 중국의 문물을 흠모하여 따르려는 사상에 젖어 어떤 나라의 수도라는 뜻으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장안에 화제다' 또는 '서울 장안에서 제일 간다' 와 같이 사용하는데요, '서울' 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재미있는 말입니다. '서울' 이라는 말은 고유 명사로 사용되는 뜻 이외에도 그 나라의 수도를 지칭하는 일반 명사로도 쓰이고 있으므로 '서울 장안' 이라는 말은 바로 '수도' 라는 뜻으로서의 '서울' 을 뜻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낱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6월호 정답

부	꽃	샘	추	위	장
고	두	밥		이	무
			식	중	독
방	물	장	수	서	양
귀		아		귀	오
	버	찌		오	비
	선		정	화	수
파	발	마			상
면	패	가	망	신	구

▶ 오른쪽 방향 열쇠

1. 실내의 습도를 알맞게 조절하는 데 쓰는 기구
3. 객차나 화차 따위를 끌고 달리는 데 사용되는 동력 장치를 갖춘 철도 차량
4. 일본식 무찔지, 말린 무에 소금과 쌀겨를 고루 뿌린 다음 돌로 눌러 담금
6. 말이나 글을 쓰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서로 뜻을 전함
8. 이리저리 구불거리거나 구부러져 있는 모양
10. 옷감이나 종이, 가죽, 머리털 따위를 자르거나 오리는 데 쓰는 쇠붙이 연장
12. 돈을 모을 줄만 알고 쓰려고 하지 않는 인색한 사람을 욕으로 이르는 말
13. 엿을 팔러 다니는 사람
17. 키가 6m가량으로 포유동물 가운데 가장 큰, 몸은 누런 흰색 바탕에 암갈색의 얼룩점이 있고, 이마 양쪽에 피부에 싸인 한 쌍의 짧은 뿔이 있음.
18. '여성의 이름다운 손' 을 이르는 말. 섬섬○○
21. 사물의 안쪽, 외부의 반대말
24. 온당하지 않게 고집을 부리는 마음. 짓궂게 남을 괴롭히거나 남이 잘되는 것을 시기하거나 하는 못된 마음
25. 신라 시대 젊은이들의 조직. 유·불·선의 정신을 받들고 세속오계(世俗五戒)와 삼덕(三德)을 실천했다

▶ 아래쪽 방향 열쇠

1. 몸에서 갈라진 다리의 안쪽 부분. 바지○○○를 잡고 늘어지다
2. 바느질할 때 손가락 끝에 끼는, 가죽이나 헝겊으로 만든 물건
4. 고려 말기에 정몽주가 지은 시조. 이방원의 '하여가(何如歌)'에 답한 것으로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읊은 내용
5. 우리가 사는 태양계의 별
7. 심봉사와 뺨덕어멈, 인당수 하면 생각나는 고대소설
9. 방고래 위에 갈아 방바닥을 만드는 얇고 넓은 돌
11. 위엄이 있는 기세. ○○가 당당하다
12. 말 못하는 사람들이 손짓으로 하는 말
14. 녹색에 검은 줄이 있는 여름 과일. 속이 빨강고 물이 많다
15. 생선에서 나는 냄새
16. 살아서 나쁜 일을 많이 하면 죽어서 여기로 간다고 하죠, 천당의 반대말
19. 지중해 연안 원산의 관상식물. 잎은 가늘고 길며 1~2월에 긴 꽃줄기 끝에 희거나 노란 꽃이 핀다. 꽃말이 '나를 잊지 마세요' 이다
20. 무엇을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 싶어 하는 마음
22. 한국의 남쪽에 있는 제일 큰 항구도시. 가수 조용필의 노래 중에 '돌아와요 ○○항에' 가 있죠
23. 스포츠의 한 가지. 죽도(竹刀)로 상대편의 머리·손목·허리를 치거나 찢어서 승부를 겨루는 경기

나는 내가 효자인 줄 알았습니다

김선희 _ 중국 _ 2016 동포문학상 시부문 가작

나는 내가 효자인 줄 알았습니다
 곤히 잠든 엄마 깨실라 까치발로 살금살금 걷는 내가
 그러나 내가 잠든 뒤 엄마는 아랑곳 하지 않았습니다
 숙삭숙삭 쟁그랑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효자인 줄 알았습니다
 목욕탕에 나란히 앉아 다정하게 엄마 등을 밀어준 내가
 성의 없는 나의 “작업”이 끝나면
 엄마는 말없이 내 몸 구석구석 씻겨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효자인 줄 알았습니다
 맛있는 반찬을 엄마의 찬밥 위에 얹어준 내가
 엄마는 평생을 따듯한 밥만 주셨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거리 가격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효자인 줄 알았습니다
 내 옷 사면서 엄마 옷도 꺼서 사온 내가
 엄마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옷이 따로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엄마도 알고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나는 내가 효자인 줄 알았습니다
 또래들보다 먼저 엄마에게 용돈을 드린 내가
 엄마는 나 몰래 내 지갑에 도로 넣었습니다
 평생을 그래왔습니다

나는 내가 효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알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효자였던 적이 없었다는 걸 **창**



맑은 국물, 부드러운 고기, 깔끔한 맛의 향토음식 '나주곰탕'

뼈 없이 고기만으로 고아낸 국물... '토렴'으로 밥알 하나하나에 깊은 맛



1. 밥상에 나란히 놓은 쇠고기 수육과 곰탕.
2. 나주곰탕.

전라남도 나주의 3대 별미라면 곰탕과 흥어, 장어가 꼽힌다. 그중 으뜸은 역시 곰탕이다. 영양 만점인 곰탕은 기력 증진에 그만이다. 나주와 곰탕의 결합인 '나주곰탕'은 지역을 넘어 이미 전국의 대표 음식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나주가 곰탕의 본고장이 된 내력을 보면 나주는 각종 물산이 풍부한 호남 지역의 오랜 중심지였다. 나주읍성에 장이 설 때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장꾼들은 값싸고 양 많은 곰탕을 즐겨 찾았다. 이 곰탕은 입소문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곡창지대인 나주에서는 곰탕 재료인 소가 그만큼 흔했다. 곰탕은 장날에 소의 머리고기, 내장 등을 꼭 고아 우려내어 팔던 장국밥에서 유래됐다. 곰탕의 '곰'은 '고다'의 명사형으로 오랫동안 꼭 고아서 국물을 낸다는 뜻이다. 곰탕은 소의 뼈를 고아서 육수를 만들기도 하고 뼈 없이 고기만으로 육수를 만들기도 한다. 나주곰탕의 가장 큰 특징은 뼈를 쓰지 않고 고기를 오랫동안



동안 고아낸 국물을 바탕으로 요리한다는 점이다. 원재료인 고기를 하루 정도 찬물에 담가 핏물을 충분히 빼준다. 그래서 나주곰탕은 다른 지역의 곰탕에 비해 국물이 맑고 개운하다. 양지, 사태, 등심, 갈빗살 등을 넣고 적어도 네 시간 이상 꼭 고아줘야 한다.

곰탕 맛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는 얼마나 신선한 고기 재료를 구해 어떤 비율로 넣어 어떻게 삶아내느냐가 관건이다.



3



4



5

담백하면서도 구수하고 맑은 육수를 만들려면 기름기를 최대한 제거해줘야 한다.

나주곰탕의 비결 중 또 하나는 '토렴'이다. 토렴이란 밥에 뜨거운 국물을 부었다가 따라내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다. 뚝배기에 밥과 고기를 담은 뒤 설설 끓는 가마솥 국물을 떠서 서너 차례 토렴을 한 뒤 손님상에 올려놓는다. 이렇게 하면 밥알 하나하나에 국물이 깊게 배어들어 먹는 느낌을 극대화해준다. 가장 좋은 식감을 즐길 수 있는 밥의 온도는 75도 안팎이라고 한다. 나주곰탕의 상차림은 매우 간단하다. 김치와 깍두기가 반찬의 전부다. 나주곰탕이 연출하는 간명한 맛의 삼박자라고나 할까. 물론 계란 지단, 파, 고춧가루, 참깨가 고명으로 살짝 얹어진다. 뚝배기 안의 곰탕을 찬찬히 보노라면 노란색(지단), 푸른색(파), 연갈색(고기), 빨간색(고춧가루)이 미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치와 깍두기의 속 깊은 맛이 더해지기에 곰탕은 더욱 식객을 매료한다. 이 김치와 깍두기는 입맛에 따라 먹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별도의 맛을 깔끔하게 즐기려면 탕과 반찬을 차례로 먹고, 맛의 어울림을 동시에 향유하고 싶다면 김치나 깍두기를 탕에 넣어 먹으면 된다. 김치를 곰탕에 넣으면 얼큰하고 구수한 맛을, 깍두기 국물을 곰탕에 넣어 먹으면 새콤달콤한 맛을 즐길 수 있다. 물론 고춧가루, 후춧가루, 소금 등의 양념도 취향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해 넣을 수 있겠다. 나주곰탕이 한 그릇에 8천 원이고 수육곰탕은 1만2천 원 선이다. 부드럽게 잘 삶아진 쇠고기 수육은 한 접시에 3만5천 원으로 넉넉한 식감을 맘껏 즐길 수 있다. 



6

3. 목심 썰고기.
4. 잘게 썰어져 다시 삶아지는 양지, 목심, 사태 등의 고기.
5. 대형 무쇠솥에 삶아지고 있는 소머리 고기.
6. 나주 금성관 앞에는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하안집 등 곰탕식당들이 즐지어 있다.

나주시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정보

금성관 → 나주목 문화관 → 금학헌(나주목사 내아) → 나주읍성 서성문 → 나주향교 → 남평역 → 남평향교 → 문바위 → 죽림사

대중교통

- 열차 서울역, 용산역(KTX), 수서역(SRT) - 나주역 (약 2시간 소요)
- 고속버스 서울 센트럴시티터미널-나주시외버스터미널(약 4시간 소요)

식당 정보

나주곰탕하안집 (061-333-4292)
남평할매집 (061-334-4682)

금학헌(나주목사 내아)

천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목사가 한양에서 나주에 내려와 산 집이 바로 나주목사 내아이다. 나주목사 내아는 지리적으로 명당자리로 꼽힌다. 마당에는 벼락을 맞아도 수백 년째 목사 내아를 지키고 있는 유명한 팽나무가 있다. 나주시는 일제강점기를 거쳐 훼손된 목사 내아를 '금학헌'이라는 이름으로 전면 해체, 복원해 숙박이 가능한 전통문화 체험 공간으로 재단장했다. KBS 인기 프로그램 <박2일>팀이 숙박해 전국적으로 알려진 금학헌에는 현재 6개의 방이 있다. 한두 달 전에 예약해야만 전라남도문화재자료 제132호로 지정된 이 기념물에서 하룻밤 숙박할 수 있다.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관람료는 받지 않는다.



재외동포신문고 서비스

알쏭달쏭 답답한 민원을 코리안넷 재외동포신문고에 푹푹! 노크하세요

코리안넷(www.korean.net)의 재외동포신문고 서비스는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들이 민원을 신청하는 공간입니다. 코리안넷에 회원가입 후 이 용하실 수 있으며, 국내 본인인증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민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신청 분야



재외동포신문고 서비스는 병무, 국세, 국적회복, 건강보험, 영사관련 업무 등 외국국적 재외동포들이 민원을 국문과 영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코리안넷 회원가입 / 로그인
2. 민원신청 - 온라인 신청서에 민원인 정보 입력
3. 하단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국문 또는 영문 작성
4. 작성한 신청서를 신청서 첨부 찾아보기에서 파일 Upload
5. 제출
6. 민원신청 완료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지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정부 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 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시대를 정부 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민·관 협치 강화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정부 내 칸막이 해소,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 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 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더 나은 한상, 더 나은 대한민국

The better Hansang,
For better Korea



제16차 세계한상대회

THE 16TH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HANSANG 2017. 10. 25(수) ~ 27(금) | 창원컨벤션센터

주최 |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주관 |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경상남도
GYEONGNAM

 창원시

매일경제 · MBN



“이민으로 해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힘은 720만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2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